

언어적,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 양상 및 특징

유정숙

터키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
현대문학 전공

yjsnr@daum.net

- I. 머리말
 - II. 터키 국영 방송 TRT 및 민영 방송 Meltem/Mesaj TV의 경우
 - III. 터키 민영 방송 Kanal 7 TV의 경우
 - IV. 맺음말
-

이 연구는 2019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KS-2019-R-41).

I. 머리말

이 논문의 목적은 터키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 양상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 제목에 대한 터키 번역어의 특징을 언어와 문화의 관점 및 맥락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효과와 의미를 드러내는지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터키에서 한국 드라마는 터키 국영 방송국 TRT1 채널에서 2005년 사극 <해신>을 방송한 이래 현재까지 터키어로 더빙되어 꾸준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터키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새롭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터키 공중파를 타고 방송된 한국 드라마에 대한 터키 시청자의 높은 관심과 대중적 인기는 2010년 전후로 형성된 터키에서의 한류 열풍을 이끈 주역이다.¹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현상은 국경, 국가, 언어, 문화 등을 초월하여 세계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교류, 접촉의 기회, 그리고 요구를 크게 증대시켰다. 2010년 전후로 부상한 터키에서의 한류 열풍도 한국의 드라마와 K-POP과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선호하고 즐기며 소비하는 터키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번역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어로 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터키어

1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중심에 K-POP(케이 팝)이 놓인 것과 달리 터키 한류의 시작과 발전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터키 공중파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가 자리한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의 입학 동기는 거의 대부분 한류의 영향인데, 특히 중, 고등학교 때 애청한 한국 드라마의 역할이 매우 컸다. 터키 한류에 있어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과 역할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 바람. 유정숙·에즈기 쟁기제르, 「터키에서 한류의 시작과 발전 양상 연구: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65집(2019), 185-194쪽.

로 옮기고 번역하는 작업이 자발적으로, 일상적으로 실천되고 중요하게 요구됨을 말하기도 한다.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새롭게 해석되어 새로운 의미로 번역되고 재구성되는 글로벌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실제 터키에서 많은 한류 팬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접하며 자발적으로 터키어 자막을 올리거나 번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²하는가 하면, 터키 대중은 터키어로 더빙된 한국 드라마를 터키 텔레비전을 통해 안방에서 편안하게 시청한다. 이때 번역은 단순히 언어 대 언어의 전환뿐만 아니라, 매체의 특징 및 환경, 그리고 현지의 문화와 습속의 차이 속에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처럼 한류의 부상 속에서 한류 문화콘텐츠에 대한 번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한류 문화콘텐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역되고 수용되는가는 중요한 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터키의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금도 텔레비전은 여전히 막강한 대중매체로 자리하며 대중적 파급력³을 지닌다. 때문에 2005년부터 터키 공중파를 타고 터키 전역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제목이 터키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터키 시청자에게 소개되었는지, 특히 텔레비전이라는 대표성을 띠는 대중매체에서 한국 드라마의 제목이 어떤 방식으로 현지어로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2 이난아, 「터키에서의 한류의 현황 및 전망: 한류 팬클럽 코리아 팬스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11집(2012), 167-193쪽.

3 터키에서 TV 드라마 산업은 거대하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투입되고 시즌마다 새로운 드라마가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온다. 이슬람 문화권의 터키 사람들은 보통 저녁 시간을 가족과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보낸다. 특히, 터키 여성의 경우 사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주로 시간을 보낸다. 유정숙, 「터키 한류 심층 분석」, 『Hallyu Now』 vol. 26(201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57쪽.

드라마의 제목은 그 드라마의 내용과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지만, 한국의 언어와 문화의 특징을 내포하는 문화소의 관점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드라마 제목의 번역 연구의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 제목에 대한 번역 연구는 언어와 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의 유형이나 방법, 전략 등을 분석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먼저, 오미형의 논문⁵은 한국영화의 영어 제목을 통해 번역 방법 및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직역, 새로 쓰기, 조절, 음차 번역 순으로 제목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혜승의 논문⁶은 러시아에 소개된 한국 영화가 어떤 제목으로 러시아어로 번역되었는지를 상세히 다룬 연구로서, 특히 영어 제목과의 연관성을 비중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제목이 시기별로 어떻게 번역되고 변화되고 있는가를 논의한 황지연의 논문⁷이 주목할 만하다. 황지연은 중국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제목의 번역 유형을 크게 유지와 변환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고찰하였는데, 중국의 경우 한국 드라마 제목의 대부분이 '유지'의 방법으로 번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번역학 연구에서 논의의 중심이 언어 및 텍스트에서 문화 전반으로 이행되면서 텍스트로서의 번역이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싼 혹은 텍스트 밖 그 시대의 문화적 맥락과 환경이 중요하게 부상했다. 이희은과 마정미의 논문은 전 지구화 시대에 영상번역의 경우,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4 박정이, 「번역과 문화의 상관성: 드라마 〈奧様は魔女〉 제목을 중심으로」, 『일어일 문학연구』 제86집(2013), 177쪽.

5 오미형, 「한국영화의 제목번역 고찰」, 『번역학 연구』 제13권 1호(2012), 59-85쪽.

6 이혜승, 「한국 영화 제목의 러시아어 번역 양상에 대한 연구: 영어 제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역과 번역』 제18권 1호(2016), 185-210쪽.

7 황지연, 「시기별 중국의 한국 드라마 제목 번역 탐구」, 『통번역 연구』 제20권 4호(2016), 223-251쪽.

등가성의 구현이라는 전통적인 번역의 관점으로는 실제 번역에 관계하는 복잡한 기제와 함의들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때문에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번역의 문제를 봐야한다는 시각을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다.⁸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아니지만 미국 드라마 제목의 일본어와 한국어 번역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번역과 문화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박정이의 논문(2013)⁹과 중국 영화 번역에 나타난 문화번역의 특성을 분석한 최성실의 연구(2006)¹⁰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 논문으로는 슬로베니아에 수입된 영상물의 제목이 미디어 시장의 상업적 논리에 맞춰 번역되고 있음을 규명한 리몬(Limon)의 연구¹¹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번역을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드라마 제목에 대한 터키어 번역의 방법 및 특징을 고찰하되, 번역에 관여하는 텍스트 밖의 문화적 요인과 맥락도 논의에 포함시킬 것이다.

실제 번역에서 중요한 것은 원문(언어, 텍스트)이 재현하는 언어적, 문화적 의미와 차이일 것이다. 흔히 그러한 의미와 차이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을 좋은 번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번역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텍스트 밖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특징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8 이희은, 「문화번역의 이론적 의미와 전지구화 시대의 영상번역」, 『미디어, 젠더, 문화』 제20권 2호(2014), 191-192쪽; 마정미, 「문화번역과 재매개 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어문화』 45집(2014), 117쪽.

9 박정이, 「번역과 문화의 상관성: 드라마 〈奥様は魔女〉 제목을 중심으로」, 『일어일 문학연구』 제86집(2013), 175-189쪽.

10 최성실, 「현대 중국영화의 '문화번역' 특성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11권(2006), 121-140쪽.

11 Limon, David. "Film titles and Cultural transfer", *Cultus: the Journal of Intercultural Mediation and Communication*, Vol. 5(2002), pp. 189-208.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터키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¹² 제목의 터키어 번역의 양상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 양상과 특징을 크게 방송사와 장르로 분류하여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우선, 방송사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방영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두 절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2000년대부터 주로 사극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한 국영방송 TRT 및 민영방송 Meltem/Mesaj TV와 2018년에 새롭게 한국 드라마 방송에 가세한 Kanal 7 TV 두 개로 구분하고, 이후 장르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에 있어 무엇보다 방송사와 장르가 주요한 변별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터키어 번역 방식이 영어 제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함께 다룰 것이다. 영어 제목은 터키 번역어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효한 참조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어 원제와 다르게 터키어로 번역되었다면 거기에 영향을 주거나 관여했을 법한 현지의 언어적, 문화적 요인과 배경도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기존의 타이틀 번역 연구들이 주로 번역의 방법과 유형을 도출하는 데에 치중한 것¹³과 달리 이 논문에서는 번역에 관여하는 언어적 속성 및 문화적 배경 등을 폭넓게 설명함으로써 번역과 문화의 연관성까지도 포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2 지금까지 터키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TRT 방송사에서 17편, Meltem/Mesaj TV에서 18편, Kanal 7 TV에서 8편, 그 외의 채널에서 2편으로 총 45편에 달한다.

13 터키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편수가 많지도 않거나 무리하게 일반화하여 번역 유형 및 방법을 도식화하기보다는 번역에 관여하는 두 언어와 문화 사이의 다양한 요인과 배경 등을 폭넓게 설명하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II. 터키 국영 방송 TRT 및 민영 방송 Meltem/Mesaj TV의 경우

1. 역사 드라마

2005년부터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한 터키의 대표적인 국영 방송사 TRT에서는 한국의 정통 역사극과 현대 사극 드라마만을 방영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역사 드라마의 서사는 인물을 중심으로 된 경우¹⁴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역사 드라마의 제목은 주인공의 이름인 경우가 많으며 더러는 주인공의 신분이나 직업, 능력, 역할, 성격 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 드라마 제목은 대부분 한자이고 몇 편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고유명사인 주인공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이름, 고유명사이며 한자로 된 한국어 제목을 터키어로는 어떻게 번역할까? 결론적으로 말해 한자로 된 제목은 한자의 뜻을 쉽게 풀어 번역하거나 원제의 의미나 원작의 주제를 중심으로 번역한다.

먼저, 제목이 한자이면서 그것이 인물의 이름처럼 고유명사인 경우에는 주인공의 이름을 소리 나는 대로 음차 번역하거나 직역하지 않는다. 원제에서 사람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는 터키 번역어에서 모두 생략된다. 대신 작품의 주제, 줄거리와 연계하여 주인공의 지위나 신분, 그리고 역할과 가치, 위상 등을 드러내는 어휘로 번역된다. 역사 드라마인 만큼 공간적 배경인 “궁”이라는 단어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터키 시청자들에게 이

14 주창윤, 「한국 텔레비전 역사 드라마의 데이터베이스와 해제」, 『한국극예술연구』 제52권(2016), 239쪽.

표1- 터키 국영 방송 TRT 1 TV

번호	한국어 제목 (방송연도)	터키어 제목(한국어 뜻)	영어 제목
1	해신 (2005)	Denizler İmparatoru(바다의 황제)	Emperor of the Sea
2	대장금 (2008)	Saraydaki Mücevher(궁의 보석)	Jewel in the Palace
3	이산 (2008)	Sarayın Rüzgarı(궁의 바람)	Wind of the Palace
4	주몽 (2009)	Efsane Prensi(전설의 왕자)	Prince of the Legend, Jumong
5	선덕여왕 (2009)	Muhteşem Kraliçe(찬란한/ 위대한 여왕)	Queen Seon Duk, Great Queen
6	상도 (2011)	Tacir(상인)	Merchant of Joseon, Sangdo
7	동이 (2012)	Sarayın İncisi(궁의 진주)	Jewel in the Crown, Dong Yi
8	서동요 (2012)	Prens'in Şarkısı(왕자의 노래)	Ballad of Seo Dong, Song of the Prince
9	마의 (2013)	Sarayın Doktoru(궁의 의사)	The King's Doctor
10	무사 백동수 (2013)	Savaşçı(무사)	Warrior Baek Dong Soo
11	기황후 (2018)	İmparatoriçe Ki(황후 기)	Empress Ki
12	제왕의 딸, 수백향 (2019)	Kralın Kızı(왕의 딸)	The King's Daughter, Soo Baek Hyang
13	화정 (2019)	İşığın Prensesi(빛의 공주)	Splendid Politics, the Princess of Light

드라마가 역사 드라마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면, <대장금>은 <궁의 보석>, <이산>은 <궁의 바람>, <주몽>은 <전설의 왕자>, <선덕여왕>은 <찬란한 여왕>, <동이>는 <궁의 진주>, <무사 백동수>는 <무사>, <제왕의 딸, 수백향>은 <제왕의 딸>, <서동요>는 <왕자의 노래>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한국 드라마 <무사 백동수>와 <제왕의 딸, 수백향>의 터키어 번역에서는 한국어의 고유명사는 생략되고 한국어와 터키어 간에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제왕의 딸”, “무사”라는 어휘들만이 선택적으로 번역됐다. 한자의 의미를 쉽게 풀어서 번역한 제목으로는 바다의 황제(해신), 빛의 공주(화정), 궁의 의사(마의)를 들 수 있다. <상도>의 번역어는 <상인>인데, 터키어에 ‘상도’라는 의미의 대응어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의 <상인>으로 전환하여 번역하였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원제는 거의 대부분 하나의 어휘인데 비해 터키어 번역어는 대부분 두 개의 어휘로 구성되며 관형어가 뒤의 명사를 꾸며주는 형식이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번역이다. 그리고 역사 드라마 제목에 대한 터키어 번역은 기본적으로 원제, 출발언어 중심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1에서 목록화한 역사 드라마의 터키어 제목은 영어 제목과 거의 흡사하다. 예를 들어 <해신>, <대장금>, <이산>, <주몽>, <상도>, <동이>, <기황후>, <서동요>, <화정>, <선덕여왕> 등의 영어 제목은 터키어 제목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차이라면 영어 제목에는 한국어 고유명사(이름)가 음차 번역되어 있는 반면에 터키어 제목에서 원제의 고유명사는 공통적으로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영어 제목처럼 터키어에서 음차 직역을 했더라면 그것이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최소한의 의미나, 어떤 느낌도 터키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인의 이름은 터키 일반인들에

게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¹⁵ 터키 대중들에게 한국(어)과 한국문화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해 터키어 제목은 대부분 한국 드라마 원제가 아닌 영어 제목을 중역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자는 현재 터키 공영 방송 TRT 방송국의 외국 드라마 부서에서 근무하는 Tuba Ses(튜바 세스) 라이선스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TRT 방송국에서 당시 한국 드라마 제목을 번역할 때 영어 제목을 중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터키 현지의 상황을 보면 이는 당연해 보인다. 지금도 터키에서 한국어는 일반적인 외국어가 아니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터키 사람도 여전히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드라마의 장르가 역사극에다가 제목이 한자라면 당시 방송국 관계자에게는 한국어 번역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TRT 국영 방송국에서 수입하여 방영된 외국 드라마들의 90퍼센트 이상이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이 영어권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¹⁶ 영어 제목을 중역한 이러한 터키어 제목은 시청자들에게 낯설며 어색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한편, 2010년을 전후로 터키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드라마는 터키 민영 방송사인 Meltem/Mesaj TV에서도 확대 방영되었다. Meltem과 Mesaj 채널은 2009년부터 한국 드라마 총 18편을 방영했는데, 7편의 작품은 TRT 1 채널에서 이미 방영되어 대중적 관심과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이다.

15 터키에서는 이름이 먼저 그리고 성이 뒤에 온다. 터리는 이름이 두 개인 경우도 있다.

16 Wikizero, "TRT'de yay ınlanan ithal diziler", www.wikizero.com/tr/TRT%27de_yay%C4%B1nlanan_ithal_diziler(검색일: 2019.12.07).

표2- 터키 민영 방송사 Meltem/Mesaj TV

번호	한국어 제목 (방송연도)	터키어 제목(한국어 뜻)	영어 제목
1	대장금 (2009)	Saraydaki Mücevher(궁의 보석)	Jewel in the Palace
2	이산 (2009)	Sarayın Rüzgarı(궁의 바람)	Wind of the Palace
3	대조영 (2011)	Büyük Kral Jo Young(대왕 조영)	The King Dae Joyoung, Dae Jo Yeong
4	천추태후 (2011)	Demir Prenses(철/쇠의 공주)	Iron Empress, Empress Cheonchu
5	바람의 나라 (2011)	Rüzgarın Krallığı(바람의 왕국)	The Kingdom of the Winds
6	추노 (2012)	Köle Avcısı(노비 사냥꾼)	The Slave Hunter
7	대왕세종 (2012)	Büyük Kral SeJong(대왕 세종)	The King Se Jong
8	거상 김만덕 (2012/2013)	Büyük Tacir(큰 상인)	The Great Merchant
9	광개토대왕 (2013)	Büyük Kral Gwanggaeto(대왕 광개토)	King Gwanggaeto, The Great Gwanggaeto
10	근초고왕 (2013)	Efsane Kral(전설의 왕)	King Geun Cho Go
11	홍길동 (2013)	Kahraman Hong(영웅 홍)	the Hero Hong Gil-dong
12	왕녀 자명고 (2014)	Prenses Jamyung(왕녀 자명)	Princess Ja-Myung, Ja Myung Go
13	해신 (2015)	Denizler İmparatoru(바다의 황제)	Emperor of the Sea
14	선덕여왕 (2016)	Muhteşem Kraliçe(찬란한/위대한 여왕)	Queen Seon Duk, Great Queen
15	마의 (2016)	Sarayın Doktoru(궁의 의사)	The King's Doctor
16	무사 백동수 (2018)	Savaşçı(무사)	Warrior Baek Dong Soo
17	상도 (----) ¹⁷	Tacir(상인)	Merchant of Joseon, Sangdo

17 <상도>의 경우, 정확한 방영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터키 민영 채널 Meltem/Mesaj TV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제목들도 주인공의 이름 혹은 주인공의 이름과 신분, 직업을 나타내는 어절의 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TRT 1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터키어 제목과의 차이점은 TRT 1의 경우 인물의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가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었다면, Meltem/Mesaj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터키어 제목에 인물의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어 음차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 <대조영>의 터키어 제목은 <Büyük Kral Jo Young>으로 그 뜻은 대왕 조영이다. 또한 <광개토대왕>과 <대왕세종>의 터키어 제목에서도 고유명사가 그대로 번역됐다. <왕녀 자명고>의 터키어 제목인 <Prences Jamyung>과 <홍길동>의 <Kahraman Hong>의 제목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터키어의 경우 로마자를 알파벳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고유명사인 대조영, 광개토, 세종 'De Co Yong', 'Goanggeto', 'Secong'으로 터키식 발음으로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방송사에서는 대중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로마자로 번역했다. 이는 터키 대중들의 용이한 접근성과 시청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의미한다.¹⁸ 실제 터키에서 인터넷으로 터키식 발음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터키에서는 사람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먼저 표기한다. 따라서 한국어 제목은 <세종대왕>, <광개토대왕>이지만 터키어 제목에서는 <대왕 세종>, <대왕 광개토>로 순서가 바뀌어 번역된다.

없었다.

- 18 터키에서 한국인 작가의 이름은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터키 식으로 번역되어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김소월은 Kim So Wol이 아닌 'Gim So Vol'로 표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터키 출판사들은 대중적 접근성과 상업성을 이유로 한국인 작가의 이름을 표기할 때 터키식이 아니라 영어식으로 표기할 것을 권하고 선호하는 편이다. 때문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이문열은 Yi Mun Yol로 표기되었다.

하지만 <거상 김만덕>과 <근초고왕>을 터키어로 번역할 때는 이와 달리 고유명사를 생략하고 한자의 의미를 쉽게 풀어 번역하거나(Büyük Tacir, 큰 상인) 혹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위상과 역할을 드러내는 어휘로 전환하여 번역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근초고왕>의 터키어 제목인 <전설의 왕>은 유일하게 영어 제목인 <King Geun Cho Go>과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다. 원제의 의미를 쉽게 풀어 번역한 제목으로는 <노예 사냥꾼>(추노)도 해당된다. 또한 사극 <바람의 나라>는 터키어 제목 <Rüzgar ın Krallığı>으로 일대일로 대응된 번역어이다.

또한 영어 제목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TRT 1채널과 마찬가지로 터키어 제목은 영어 제목과 매우 유사하다. <천추태후>의 터키어 제목은 한국어 의미로 <철의 공주>인데, 이는 영어 제목 <Iron Empress>와 형태 및 의미에서 똑같은 번역어이다. 여기에는 <대장금>, <이산>, <바람의 나라>, <추노>, <광개토대왕>, <마의>, <해신>, <왕녀 자명고>, 그리고 <대왕 세종> 등이 포함된다. 영어 제목과 터키어 제목의 차이라면 김만덕, 백동수와 같이 주인공의 이름이 번역된 반면 터키어 제목에서는 모두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길동>의 경우 터키어 제목에서는 이름은 생략되고 성만 번역되었다. <근초고왕>(전설의 왕)을 제외하고는 터키어 제목은 영어 제목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TRT와 Meltem/Mesaj 방송사에서 방영된 역사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은 공통적으로 출발언어의 의미와 주제에 충실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방송사가 한국의 역사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고유명사로 된 원제를 그대로 음차 번역하거나 직역의 방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두 어휘의 어절로 전환하여 한자로 된 원제의 의미를 쉽게 풀거나 원작의 내용이나 주제, 메시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이는 출발언어를 중심으로 한 원제

의 설명적, 정보적 전환 번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의 터키어 제목들은 공통적으로 영어 중역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과 터키가 지리적으로 멀뿐만 아니라 아직은 터키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지식이 낮은 것을 반증한다. 장르가 역사극이고 제목에 생소한 한자와 고유명사가 많다보니 불가피하게 선택한 번역으로 보인다. 영어 중역의 방식을 택한 한국 역사 드라마의 터키어 제목들은 현지인들에게 낯설고 어색하게 받아들여졌다.

2. 현대 로맨스 드라마

앞서 터키 국영방송 TRT 1 채널과 민영 방송사 Meltem/Mesaj TV에서 방영된 한국 역사 드라마의 터키어 제목은 원제를 변형하여 번역했다. 그러나 이들 터키어 제목은 출발언어 중심으로 번역되었다. 다시 말해 원작의 주제나 내용, 원제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출발언어 중심의 번역에 다가 영어를 중역하는 방식을 따랐다.

표3- 터키 국영 방송 TRT 1 및 TRT Okul 채널

번호	방송사	한국어 제목 (방송연도)	터키어 제목(한국어 뜻)	영어 제목
1	TRT 1	궁 (2008)	Düşlerimin Prensi (내 꿈속의 왕자)	Princess Hours, Goong, Palace
2		궁S (2009)	Zoraki Prens (역지로/강제로 왕자)	Prince Hours, Goong S, Palace S
3	TRT Okul	꽃보다 남자 (2012)	Yaban Çiçeği(야생화)	Boys over Flowers
4		드림하이 (2012)	Buyuk Hayallar(큰 꿈을 펼쳐라)	Dream High

하지만 여기에서 다룰 로맨스 드라마의 터키어 제목은 이들과는 결을 달리한다. 원제가 영어인 <드림하이>를 제외하고는 원제의 의미를 쉬운 몇 개의 어절로 풀어 설명하는 방식도 아니며, 영어 제목과의 관련성도 적은 제목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껏 TRT 방송국과 Meltem/Mesaj 채널에서는 주로 정통 사극 위주로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였다. 때문에 터키 공중파에서 현대 로맨스 드라마의 편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TRT 방송국에 속한 TRT Okul 채널은 우리로 보자면 EBS와 같은 공영 방송 채널로 TRT 1채널과 달리 당시 인터넷상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하이틴 청춘 로맨스 드라마인 <꽃보다 남자>와 <드림하이>를 편성하여 방영하였다.

먼저, TRT 1 채널에서 방송된 현대 로맨스 드라마 <궁>과 <궁S>의 터키어 제목은 의미상 원제와 다르면서 영어 제목인 <Princess Hours, 공주의 시간>와 <Prince Hours, 왕자의 시간>과도 관련성이 적다. 그러나 원제와 달리 영어와 터키어 타이틀에는 공통적으로 “왕자”, “공주”와 같은 단어가 추가되었다. 2008년, 2009년도 여름에 TRT 1 채널에서 방영된 이 두 로맨스 드라마들은 처음부터 터키의 중, 고등학교 10대 여학생을 주된 타깃으로 겨냥했다.

터키어 제목 <내 꿈속의 왕자>와 <억지로 왕자>를 터키인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이러한 제목은 어떤 메시지와 의도를 전달할까? 이 두 제목들에는 터키 10대 여학생들 혹은 젊은 여성들에게 어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터키어 제목에 공통적으로 왕자라는 어휘가 들어간다. 특히 <내 꿈속의 왕자>의 터키어 제목은 이 드라마가 여성이 꿈에 그리는,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가 연상되어 10대 터키 여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데 적합한 제목이다. 그러한 의도는 그대로 적중했다. 실제 이 두 드라마들은 여름 방학을 맞이해 고향으

로 돌아가 가족들과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터키 10대 여학생들의 관심을 끄는데 크게 성공했다.

가장 흥미로운 번역은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터키어 제목인 <야생화>이다. 원제 및 영어 제목과 전혀 상관없이 제목을 새로 지었다. 이는 두 언어와 문화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한국어 제목 그대로 터키어로 번역했을 때, 원제의 의미와 느낌 혹은 분위기가 전혀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터키의 문화와 정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 제목을 터키어로 직역했다면 대다수의 터키인들에게는 이 제목이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들리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터키어에서는 꽃과 남자를 함께 일컫는 특정한 어휘나 표현이 없으며, 남자를 꽃에 비유하여 사고하거나 연상하는 것은 낯설고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꽃보다 남자>의 터키어 제목 <야생화>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번역되었을까? 원제를 그대로 번역했을 때, 도착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와 뉘앙스, 느낌을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대안은 제목을 새로 짓는 것이다. 터키어 타이틀 '야생화'는 <꽃보다 남자>의 여주인공의 이름인 '금잔디'와 관련이 있다. 금잔디는 터키어로는 cimen 혹은 cim인데 이 두 단어는 한국어로 풀 혹은 잔디로 번역된다. 문제는 '금잔디'의 대응어인 cimen이란 단어가 터키에서 여자 주인공의 이름으로 쉽사리 연상되지도 않을 뿐더러 터키 시청자들에게 드라마와 관련하여 아무런 느낌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터키어 제목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드라마의 주제와 의미를 4명의 꽃미남 F4(Flower 4)보다는 금잔디라는 여자 주인공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터키어에서는 별다른 상징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풀, 잔디라는 이름보다는 '야생화'라는 새로운 제목을 통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에너지와 생기가 넘치는 강인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잡초, 야생화

같은 금잔디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야생화라는 제목은 이러한 문화적 상징성을 그대로 전하면서 드라마에 대한 느낌과 뉘앙스를 덧씌우는 효과를 만든다. 잔디라는 이름이 터키에서는 특별한 의미나 뉘앙스를 주지 못한 것에 비해 야생화는 주인공의 성격과 잘 조응하면서 드라마에 대한 느낌과 여운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여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터키인의 관점은 터키 드라마로 리메이크되어 크게 화제가 된 2013년 Kanal D 채널의 <Gunes beklerken, 태양을 기다리며>의 여주인공인 Zeynap의 캐릭터에서도 그대로 투영된다. <꽃보다 남자>의 터키어 버전 <태양을 기다리며>에서 여주인공 제이넵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머니와 작은 옷 수선 집을 운영하며 힘겹게 산다. 어머니 친구의 도움으로 대도시 이스탄불로 이사를 가고 장학금을 받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제이넵은 불행을 딛고 희망을 찾아가는 당차고 강인한 '야생화'의 속성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한편, 터키 민영방송 Meltem/Mesaj TV에서 2013년에 방영된 <공주의 남자>의 터키어 번역어는 <공주의 열정>이다. 이 경우는 원제를 완전히 새롭게 지었다기보다는 원제의 일부를 변형하여 번역한 사례다. 한국어 제목 <공주의 남자>를 터키어로 직역했을 경우 Prensesin Erkeği인데, 터키 사람들에게 이 제목은 공주에게 남편 혹은 정혼자 외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특히 터키 가정에서 저녁에 드라마 시청할 때 어린 아이들도 함께 시청하는, 보수적이며 이슬람적인 터키인의 정서와 문화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터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의 제목을 터키어로 번역할 때, 현지의 언어적 관습 및 문화적 정서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로맨스 드라마 <올인>과 <겨울연가> 두 작품의 터키어 제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에서 2003년 인기리에 방영된 SBS의

〈올인〉은 2005년 터키 Star TV에서 터키어 제목 〈출구 없는 사랑〉으로, 〈겨울연가〉는 2006년 Kanal D 채널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원제와 다르게 번역되어 터키 시청자에게 소개되었다. 원작의 내용과 주제를 터키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현지의 문화와 정서에 맞춰 다르게 번역한 경우이다. 이 제목들은 영어 제목과의 연관성도 찾기 힘들다. 한국어 뜻으로 보면 다소 평범하고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제목을 통해 터키 시청자는 이 드라마가 로맨스 장르이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쉽게 직감할 수 있다. 특히 제목이 영어인 〈올인〉의 터키어 제목 〈출구 없는 사랑〉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사랑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막히거나 제어할 수 없는 운명적 사랑임을 드러낸다. 실제 이 드라마는 집안 배경이 전혀 다른 두 남자가 사랑과 성공이라는 욕망에 삶의 전부를 내걸고 최후의 승부를 벌이는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터키어 제목은 원작의 주제를 남녀 주인공의 운명적인 사랑에 보다 초점을 맞춰 새롭게 번역을 했다. 〈겨울연가〉라는 원제가 갖는 로맨틱한 분위기도 〈영원한 사랑〉이라는 상투적인 제목으로 전환되면서 원제의 독특한 뉘앙스는 탈색된 셈이다. 원제 그대로 번역하여 터키 시청자의 공감과 이해를 얻는 데 실패하기보다는 시청자의 편의를 고려해 드라마의 주제와 정보를 전달하는 데 보다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 드라마와 달리 로맨스 드라마의 터키어 제목은 영어에서 중역하지 않았다. 원작의 주제와 원제의 뜻을 참고하되, 원작 혹은 원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번역하였다. 출발언어와 도착언어의 의미를 모두 고려한 번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다룬 역사 드라마의 터키어 번역과는 대별적인 지점이다. 이는 터키 방송국이 로맨스 드라마 제목의 번역에서 터키 시청자의 공감과 이해를 중요하게 감안했음을 시사한다. TRT와 Meltem/Mesaj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은 드라마

의 장르에 따라 변모하였다.

Ⅲ. 터키 민영 방송 Kanal 7 TV의 경우

1. 역사 드라마

터키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Kanal 7 채널은 2018년 한국 드라마 방영을 시작으로 터키 대중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터키에서 한류 팬 층의 규모가 커지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자 Kanal 7 TV에서도 한국 드라마 방영을 결정했다. 2018년부터 한국 드라마를 방영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방송국의 결정에 터키 시청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였고 반응과 관심도 매우 뜨거웠다.¹⁹ 한국 드라마 방영 계획에 대한 터키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문의로 별도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할 정도였다. 또한 Kanal 7 TV에서는 방영 고려 중인 한국 드라마의 목록을 공개하고 시청자 공개 투표를 거쳐 선호하는 작품을 선별하였다. 완성도 높은 더빙 제작을 위해 당초 방영 예정일을 여러 번 연기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²⁰ 한국 드라마 방영에 거는 Kanal 7 방송국 관계자의 기대감과 애정을 엿볼 수 있다.

19 엄민아, 「1년간의 공백, 터키 공중파 방송 한국 드라마 방영 결정」,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년 3월 12일.

20 Kanal 7 Dizileri, “Kore Dizileri Ne Zaman Başlayacak? Hint Dizileri Bitecek mi?”, Youtube, 2018년 3월 6일. www.youtube.com/watch?v=5auTK_6156Q(검색일: 2019. 12.02).

표4- 터키 민영 방송 Kanal 7 TV

번호	한국드라마 제목 (방송연도)	터키어 제목 (한국어 뜻)	영어 제목
1	달의 연인 (2018)	Aşka Yolculuk(사랑으로의 여행)	Moon Lovers: Scarlet Heart
2	해를 품은 달 (2018)	Sonsuza Dek(영원히)	Moon Embracing Sun
3	구르미 그린 달빛 (2018)	Bir Tutam Aşk(한 줌의 사랑)	Love in the Moonlight
4	7일의 왕비 (2019)	Ömre Bedel(생명의 대가)	Queen for Seven Days
5	왕은 사랑한다 (2019)	Sevda Masalı(사랑의 전설)	The King in Love



사진1-Kanal 7 TV 한국 드라마 포스터

사극 <달의 연인>의 터키어 제목은 <Aşka Yolculuk, 사랑으로의 여행>이다. 원제뿐 아니라 영어 제목인 <Moon Lovers: Scarlet Heart>과도 다른 번역어다. 그 배경을 유추해보자면, 원작의 주제를 과거로 돌아간 여자 주인공의 '사랑으로의 여행'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번역은 번역자의 원작에 대한 해석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Kanal 7 TV에서 터키어로 제작한 <달의 연인> 예고편의 내레이션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일식으로 인해 시간에서 미끄러진 젊은 여자 해수,
궁에서 벌어지는 끝이 없는 음모들,
그리고 왕자들의 왕좌 전쟁에 낀 해수의 사랑으로의 여행,
환상적인 판타스틱 멜로드라마
Aşka Yolculuk, 7월 16일 평일 Kanal 7 TV에서 방송됩니다.
(굵은 글씨 및 밑줄, 모두 인용자에 의한 것임)²¹

한국 역사 드라마의 원제 및 영어 제목과 관련성이 없는 터키어 제목으로
는 드라마 <해를 품은 달>, <구르미 그린 달빛>, <7일의 왕비>, <왕은 사랑한
다>도 해당된다. 우선, 이들 드라마의 영어 제목은 대부분 한국어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거나 원제의 뜻에 충실한 번역어이다. <해를 품은 달>의
영어 제목 <Moon Embracing Sun, 해를 품은 달>과 <7일의 왕비>의 영어
제목인 <Queen for Seven Days, 7일 동안의 여왕>는 거의 직역에 가까우며,
다른 두 작품 <구르미 그린 달빛>과 <왕은 사랑한다>의 영어 제목 <The
King in Love, 사랑에 빠진 왕>도 원제의 문형을 약간 바꿨지만, 원제의
의미에 충실한 번역어들이다.

Kanal 7에서 방영된 역사 드라마에 대한 터키어 제목은 현지에 맞게
완전히 자국화한 번역어이다. <해를 품은 달>의 터키어 제목인 <Sonsuza
Dek, 영원히>, 시적이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한국어 제목인 <구르미
그린 달빛>의 터키어 제목은 <한 줌의 사랑>이다. 또한 사극 <왕은 사랑한다>

21 Kanal 7 Dizileri, "Yeni Kore Dizisi Aşka Yolculuk 16 Temmuz'da Kanal 7'de
Başlıyor", Youtube, 2018년 7월 6일. youtu.be/smkWj93zJnk(검색일:2019.12.02).

는 터키어로 <사랑의 전설>로, <7일의 왕비>는 <생명의 대가>로 전혀 다르게 번역됐다. 원제의 문형, 의미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사랑으로의 여행>, <영원히>, <한 줌의 사랑>, <생명의 대가>, <사랑의 전설>과 같은 터키어 타이틀은 상투적이고 진부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터키어 번역어들은 공통적으로 이 드라마가 사랑 이야기임을 전면에서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터키어 제목에는 ‘사랑’과 관련된 터키어 ask, sev, sevda와 같은 단어들 이 자주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실제 터키에 소개되는 외화의 경우 로맨스나 멜로드라마의 제목에는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번역하고, 반대로 공포나 스릴러 장르의 영화의 제목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상업적인 이유에서인데, 이러한 제목이 터키 관객들의 관심과 대중적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Leon>이란 영화의 제목도 터키에서는 ‘사랑의 힘’으로 번역돼 개봉됐다. 영화 <Leon>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원제 그대로 번역돼 개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키의 경우 매우 이색적인 번역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달의 연인>의 <Aşka Yolculuk>, <구르미 그린 달빛>의 <Bir Tutam Ask>, <7일의 왕비>의 <Ömre Bedel>, 마지막으로 <왕은 사랑한다>의 <Sevda Masal ı>와 같은 터키 번역어는 터키 시청자들에게 친숙하며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제목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번역어들과 같거나 유사한 터키 드라마 제목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şka Yolculuk, 사랑으로의 여행>의 제목은 Star TV의 <Askin Pesinde>, ATV의 <Aska Surgun>, 그리고 TRT 1에서의 <Yunus Emre Askin Yolcugu>과 유사하다. <구르미 그린 달빛>의 터키어 제목인 <Bir Tutam Ask, 한 줌의 사랑>은 Kanal D TV의 <Bir Dilim Ask>와 ATV 채널의 <Bir Ask Ugruna>라는 터키어 제목과 흡사하다.

앞서 살펴본 터키 국영방송 TRT 채널 및 민영방송 Meltem/Mesaj TV에서

방영된 한국 역사 드라마는 대부분 정통 사극이었다. 그러나 민영방송 Kanal 7 채널은 다양한 장르의 비교적 최신작을 선정하였으며, 사극 중에서 퓨전 사극을 방영하였다. 그만큼 대중적 인기와 시청자의 반응을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에도 영향을 주게 마련인데, 원래의 제목에 설명적, 정보적 내용을 추가하거나 원제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과 같은 일부 변형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제목으로 번역한 것과 관련된다. Kanal 7 TV에서 방영된 역사 드라마의 터키어 제목은 원제와 무관한 현지의 문화와 정서, 언어적 관습에 맞게 자국화한 localization한 번역이다. 한국 드라마 제목이 갖고 있는 외래적인 의미와 낯선 뉘앙스를 지우고, 현지인에게 익숙하며 자연스런 표현으로 새롭게 번역한 것이다. 이는 한국 역사 드라마의 터키어 번역어가 기존 터키 드라마 제목과 형태와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2. 현대 로맨스 드라마

Kanal 7 TV에서는 2018년 4월부터 한국 드라마를 새로 방영하기 시작했는데, 총 8편 중에서 3편은 현대 로맨스 드라마이다. 2018년 4월 18일에 처음 로맨스 드라마 <킬미힐미>를 방영하였다.

표5- 터키 민영 방송 Kanal 7 TV

번호	한국드라마 제목 (방송연도)	터키어 제목 (한국어 뜻)	영어 제목
1	킬미힐미 (2018)	Sil Baştan(처음부터 다시)	Kill me Heal Me
2	비밀 (2018)	Feda(희생)	Secret Love
3	역도요정 김복주 (2018)	Sev Beni(나를 사랑해줘)	Weight Lifting Fairy Kim Book Joo



사진2-Kanal 7 TV 한국 로맨스 드라마 예고편 장면

위의 표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맨스 드라마의 터키어 타이틀은 한국 드라마 제목뿐 아니라 영어 제목과도 관련성이 없는 제목들이다. 한국어 제목과 영어 제목의 관련성을 일별해보면, 일단 <킬미힐미>의 영어 제목은 원제가 영어인 까닭에 그대로 <Kill Me Heal Me>로 옮겨졌으며 <비밀>의 영어 제목에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비밀 사랑>으로 번역되었다. 마지막으로 <역도요정 김복주>는 원제를 그대로 직역한 경우이다. 그러나 터키어 제목은 한국어 제목 및 영어 제목과 전혀 관련 없이 번역되었다.

로맨스 힐링 드라마인 <킬미힐미>의 터키어 제목은 <Sil Baştan>이다. 터키어 제목의 뜻을 우리말로 옮기면 '모든 것을 지워라 혹은 잊어라'라는 뜻인데, 지나간 모든 일을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터키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상적이며 관용적인 표현이다. 실제 Sil Baştan

이란 표현은 터키 드라마 제목으로도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Star TV와 Kanal D TV에서 <Sil Bastan>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터키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했으며, Fox TV에서도 이와 유사한 <Yeni Bastan, 다시 시작해>란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했다. 터키인들에게 매우 대중적이며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드라마 <비밀>의 터키어 번역어는 <Feda>로 그 뜻은 ‘희생’이다. 이 드라마의 주제를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파란만장한 여성의 삶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희생은 터키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테마이기도 하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여성 캐릭터는 터키 대중 매체가 갖고 있는 여성 젠더의 문화적 규범성과 대중성에도 맞닿아 있다.

마지막으로 <역도요정 김복주>는 터키어로 <Sev Beni, 나를 사랑해줘>로 번역되었다. 원제가 드러내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과 직업이 터키 번역어에서 모두 생략된 셈이다.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터키 사람들에게는 낯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정보 전달 기능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에서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역도요정’이라는 표현도 터키 사람들에게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생소한 단어 조합이기에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역도요정 김복주>의 터키어 제목인 <나를 사랑해줘>는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들리는데, 터키 시청자들에게는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대중적인 제목이다. TRT 1 채널에서 <Sev Beni>라는 동일한 제목의 터키 드라마가 방영되었으며, <Hangimiz Sevmedik>, <Beni Boyle Sev>와 같은 유사한 제목의 터키 드라마도 여럿 있었다. 또한 Kanal D 채널에서도 <나를 사랑해줘>라는 제목과 형태, 의미에서 비슷한 <Sev Kardesim>라는 제목의 터키 드라마를 방영했다.

Kanal 7 TV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 번역어는 장르와 상관없

이 공통적으로 원제의 의미에 그대로 대응되거나, 원작의 내용이나 주제를 함축하는 제목이 아닌 현지의 문화와 언어적 관습에 맞춰 새롭게 만든 제목이다. 출발 언어가 아닌 도착 언어와 문화 중심의 번역, localization한 번역이다. 현지의 문화적 습속과 언어적 관습에 맞춰 번역하는 이러한 지역화, 자국화한 번역은 원제에 묻어나는 이국적이며 외래적인 요소 및 의미, 그리고 이질적이고 낯선 뉘앙스들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국화, 지역화한 번역어들은 현지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현지의 문화적 특성 및 수용자의 언어적 관습에 걸맞은 메시지로 전환하는, 현지화 및 자국화한 번역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앞서 다룬 TRT 및 Meltem/Mesaj TV에서 터키어 번역 양상이 드라마의 장르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과 달리 Kanal 7 채널의 경우에는 장르와 무관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 드라마 제목이 터키어로 번역되었다. 한국 드라마 방영을 결정한 초반부터 대중의 참여와 호응을 중시했던 Kanal 7 채널이라는 방송사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터키에서 외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의 타이틀을 번역할 때는 원래의 제목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는 드물며 원제와 달리 새로운 제목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터키 대중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 어내고, 결과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는 제작자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때문에 원제의 뜻이나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터키에서는 외화 및 외국 드라마를 수입하여 방영할 때 자국화한, localization한 번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² 이는 대중적으로 친숙

22 Dev Film Sanat, "Yabancı Filmlerin İsimlerinin Türkçeye Çevirilmesi", 2018년 8월 18일. devfilmsanat.blogspot.com/2015/08/yabanc-filmlerin-ismilerinin-turkceye.html?m=1&fbclid=IwAR2NCz88m_XdzNpGy5iyI9ATTJxab5nphi7jPheSvysztCnUSwVgbs7gKc0(검색일: 2019.12.07).

한, 관습적인 터키어 제목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터키 대중의 심리와 기대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외국 문화에 대한 터키 대중문화의 한 속성으로 읽힌다.²³ 결론적으로 Kanal 7 TV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에서는 언어적인 요소보다는 언어 외적인 요소, 특히 영상 번역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대중성과 상업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터키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터키어 제목의 번역 양상과 특징을 크게 방송사와 장르별로 살펴보았다. 터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는 공영방송에서 상업방송으로, 전통적인 매체에서 신생 매체로, 사극에서 최근의 현대물 드라마 장르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터키에서의 대중적 인기와 터키 시청자의 관심도와 기대가 적극 반영된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는 번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영상문학의 제목 번역에서는 원제에 대한 정확하고도 참신한 번역이 중요시된다. 원문의 내용과 주제, 메시지를 시청자와 관객에게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또한 참신하게 창조된 번역을 통해 원작에 대한 시청자와 관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본 결과 한국

23 터키 방송사는 외국 드라마와 외국 영화를 모두 터키어로 더빙한 후 방송한다.

드라마가 공영방송에서 민간방송으로, 전통적인 매체에서 신생 매체로, 사극에서 동시대 현대물로 확대되면서 처음에 터키어 제목은 원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는 영어 제목을 중역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점차적으로 터키어의 관습적 표현과 터키의 문화와 정서, 습속에 맞게 번역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즉, 원제와 상관없는 자국화한, localization한 번역으로 변모, 이행되었다. TRT 방송사 및 Meltem/Mesaj TV에서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에는 방송사가 아닌 드라마의 장르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였다. 두 방송사에서 역사 드라마 제목의 번역은 모두 출발언어 중심의 설명적, 정보적 전환 번역이었으며, 현대 로맨스 드라마의 경우에는 출발언어와 도착언어를 모두 고려하되 원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번역이었다. 이와 달리 민영방송사인 Kanal 7 TV에서는 드라마의 장르와 관계없이 도착언어 중심의 자국화한 번역 양상을 드러냈다. 이는 대중성과 상업성을 무엇보다 우선시한 Kanal 7 방송사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터키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에는 방송사와 장르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터키어 제목 번역에 나타난 영어 중역과 자국화한 번역 방법은 터키 사회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직은 터키 시청자들에게 대중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드라마와 같은 영상번역의 경우, 무엇보다도 상업적 성공과 대중적 인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한국어 제목에 포함된 고유명사나 이름이 터키어 제목에서 대부분 생략되고 영어로 된 한국어 제목도 그대로 번역되지 않고 현지화, 지역화한 표현으로 전환되어 번역되었다. 이를 통해 외국어를 가능하면 모두 터키어로 번역해야 하는 터키 대중의 일반적 기대와 터키 사회의 보수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터키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에 관한 이번 연구가 앞으로 터키에 소개된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에 대한 터키어 번역 연구에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논문

- 마정미, 「문화번역과 재매개 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어문화』 45집, 2014, 117-146쪽.
- 박정이, 「번역과 문화의 상관성: 드라마 〈奧様は魔女〉 제목을 중심으로」. 『일어일 문학연구』 제86집, 2013, 175-189쪽.
- 오미형, 「한국영화의 제목번역 고찰」. 『번역학 연구』 제13권 1호, 2012, 59-85쪽.
- 유정숙, 「터키 한류 심층 분석」. 『Hallyu Now』 vol. 2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49-61쪽.
- 유정숙·에즈기 쟁기제르, 「터키에서 한류의 시작과 발전 양상 연구: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65집, 2019, 60-81쪽.
- 이난아, 「터키에서의 한류의 현황 및 전망: 한류 팬클럽 코리아 팬스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11집, 2012, 167-193쪽.
- 이혜승, 「한국 영화 제목의 러시아어 번역 양상에 대한 연구: 영어 제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역과 번역』 제18권 1호, 2016, 185-210쪽.
- 이희은, 「문화번역의 이론적 의미와 전지구화 시대의 영상번역」. 『미디어, 젠더, 문화』 20권 2호, 2014, 191-192쪽.
- 주창윤, 「한국 텔레비전 역사 드라마의 데이터베이스와 해제」. 『한국극예술연구』 제52권, 2016, 239-291쪽.
- 최성실, 「현대 중국영화의 ‘문화번역’ 특성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11권, 2016, 121-140쪽.
- 황지연, 「시기별 중국의 한국 드라마 제목 번역 탐구」. 『통번역 연구』 제20권 4호, 2016, 223-251쪽.

Limon, David. "Film titles and Cultural transfer." *Cultus: the Journal of Intercultural Mediation and Communication*, Vol. 5, 2002, pp. 189-208.

2. 인터넷 사이트

www.wikizero.com/tr/TRT%27de_yay%C4%B1nlanan_ithal_diziler.

www.youtube.com/watch?v=5auTK_6156Q.

tr.wikipedia.org/wiki/TRT_1_taraf%C4%B1ndan_yay%C4%B1nlanan_programlar%C4%B1n_listesi.

tr.wikipedia.org/wiki/Atv_taraf%C4%B1ndan_yay%C4%B1nlanan_programlar%C4%B1n_listesi.

tr.wikipedia.org/wiki/FOX_(T%C3%BCrkiye)_taraf%C4%B1ndan_yay%C4%B1nlanan_programlar%C4%B1n_listesi.

tr.wikipedia.org/wiki/Star_TV_taraf%C4%B1ndan_yay%C4%B1nlanan_programlar%C4%B1n_listesi.

tr.wikipedia.org/wiki/Kanal_D_taraf%C4%B1ndan_yay%C4%B1nlanan_programlar%C4%B1n_listesi.

tr.wikipedia.org/wiki/Show_TV_taraf%C4%B1ndan_yay%C4%B1nlanan_programlar%C4%B1n_listesi.

tr.wikipedia.org/wiki/Anasayfa.

devfilmsanat.blogspot.com/2015/08/yabanc-filmlerin-isimlerinin-turkceye.html?m=1&fbclid=IwAR2NCz88m_XdzNpGy5iyI9ATTJxab5nphi7jPheSvyszCnUSwVgbs7gKc0.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터키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 양상을 크게 방송사와 장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터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는 2005년 이래 꾸준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대중적 인기는 터키에서 한류를 촉발하고 발전시킨 주역이다. 이때 터키 공중파를 타고 터키 전역에 방송된 한국 드라마의 제목이 터키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터키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수용됐는지, 그 번역의 양상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터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는 공영방송에서 상업방송으로, 전통적인 매체에서 신생 매체로, 사극에서 동시대의 현대물 드라마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번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 양상을 분석한 결과, 터키의 국영방송 TRT 및 민영방송 Meltem/Mesaj 채널에서 방영된 역사 드라마의 터키어 제목은 원제에 대한 설명적, 정보적 전환 번역이 주로 사용되었다. 장르가 정통 역사 드라마였기 때문에 원제는 한자인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한자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역사 드라마의 터키어 제목은 영어를 중역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터키에서 한국 문화 및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아직은 적다는 점을 반증한다. 중역에 의한 터키어 제목은 터키인들에게 낯설고 어색하며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현대 로맨스 드라마의 터키어 제목은 원작의 내용과 주제를 참고하되, 원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르게 번역되었다. 원제의 의미와 도착 언어의 문화 둘 다를 고려한 번역으로 터키인이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TRT 및 Meltem/Mesaj 두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은 드라마의 장르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가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은 터키어의 관습적 표현과 터키

문화 및 정서, 습속 등을 고려한 도착 언어 중심의 번역으로 이행되었다. 민영방송 Kanal 7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의 터키어 제목은 드라마의 장르와 상관없이 원제와 무관한 자국화한, localization한 번역이었다. 이러한 터키어 번역에서는 상업적 성공과 대중적 인기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터키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제목의 터키어 번역에는 방송사와 장르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투고일 2019. 12. 17.

심사일 2020. 4. 9.

게재 확정일 2020. 4. 29.

주제어(keyword) 터키 한류(Korean wave in Turkey), 한국 드라마(Korean dramas), 제목 번역(Title translation), 터키어(Turkish language), 영어 중역(Second hand translation), 지역화(Localization),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

Abstracts

An Analysis of the Turkish Translation of Korean Drama Titles: From a Linguistic and Cultural Perspective

Yoo, Jung-suk

This paper analyzes the Turkish translation of the titles of Korean dramas that aired on Turkish television by genre and broadcasting company. The huge popularity Korean dramas have gained in Turkey since 2005 has given ris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wave in Turkey. In this regard, questions of how the titles of Korean dramas were translated into the Turkish language and what the effects and implications of these translations are should be explored in detail. This study further reveal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lation and culture by examining the Turkish translations of Korean drama titles.

The broadcasting of Korean dramas on Turkish television gradually expanded from public television to commercial/private channels, from old channels to new broadcasting companies, and from Korean historical dramas to more recent, modern dramas in terms of genre and subject matter. This change may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methods and strategies used to translate the titles of these dramas into Turkish.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titles of Korean historical dramas aired on the TRT channel and Meltem/Mesaj channels were translated in a way that provided key information about the drama itself for viewers. The Turkish titles, however, were translated from the English titles of the Korean historical dramas, which resulted in viewers finding the translations strange, awkward, and unnatural. Later on, drama titles were translated in a way that better complied with and responded to Turkish culture and the general sentiment of Turkish people. These Turkish translations, which completely changed and were thus unrelated to the original Korean titles, were created for the target language custom and culture, namely, Turkish culture. The localized nature of the Turkish titles of Korean dramas aired on Kanal 7 channel in 2018 are a case in point. Such localization of translation implies that Turkish people have little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 example of Kanal 7 channel also shows us that commercial success and popularity are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when it comes to screen translation such as that of TV dramas and films.